

북한의 <제7차 당대회 경축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의 특징과 의미*

강동원(동아대학교 하나센터 조교수)

차 례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 설계
- IV. 분석
- V. 결론

<국문 초록>

지난 2016년 5월 11일 북한에서는 제7차 당대회를 경축하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바로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 그리고 공훈국가합창단이 합동공연을 개최한 것이다. 제7차 당대회를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번 합동공연은 7차 당대회를 분석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주목된다. 음악정치라 표현될 만큼 김정은의 정치적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세 개의 악단이 합동공연을 펼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번 7차 당대회의 중요성과 의미를 잘 보여준다. 세 개 악단이 합동공연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정은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선군혁명의 나팔수로 표현되는 모란봉악단, 그리고 사회주의문명건설의 핵심이라 평가받는 청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김정은의 아이콘이라 불리며 선군혁명의 나팔수로 표현되는 모란봉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악단, 그리고 사회주의문명건설의 핵심이라 평가받는 청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 분석을 통해 북한이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한 의도를 알 수 있다.

※ 주제어: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청봉악단, 당7차대회, 음악정치

I. 서론

1. 연구목적

북한은 지난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개최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린 이 대회에서 김정은은 ‘조선로동당위원장’에 추대되었다. 김정은은 개회사에 이어 3시간의 연설을 통해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했다. 사업총화보고서는 무려 7만 2천자 분량에 달하지만 주로 김정은의 업적 과시와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김정일 시대에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던 당대회를 36년 만에 4일간 평양 4·25문화회관(구, 2·8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것이다. 제6차 당대회 개최 이래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회를 열지 못했다. 특히 북한역사상 국가 존폐까지 치달았으며 2011년 김정일 사후,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7차 노동당대회가 개최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²⁾

아울러 주목하는 것은 5월 9일 폐회 이후 11일 평양에서는 7차 당대회를 경축하는 특별공연이 열렸다. 바로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그리고 공훈국가합창단이 합동공연을 개최한 것이다. 제7차 당대회를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번 합동공연은 7차 당대회 의미를 가늠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음악정치라 표현될 만큼 김정은의 정치적 의도를 잘 보여주는 세 개의 악단이

2) 김병욱,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개최배경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제32권 2호(2017), 102.

합동공연을 펼쳤다는 점은 이번 7차 당대회의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정은의 아이콘이라 불리며 ‘선군혁명의 나팔수’로 표현되는 모란봉악단, ‘공화국의 국보급 예술단체’라 칭하는 청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결성되어 이름까지 지어 주었다는 모란봉악단은 지난 2012년 7월 시범공연 이후 북한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기념공연을 개최했다.³⁾

<노동당 창건 기념일>,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축하 공연>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까지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은 <당창건 70주년 기념>과 <광명성 4호 발사 축하 기념> 합동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합동공연처럼 청봉악단까지 포함한 세 개 악단의 합동공연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세 개 악단의 합동공연 그 자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10월, 평양 대동강변 야외무대에서 “당창건 일흔둠 경축 1만명 대공연”이 개최된 적이 있다. 북한당국은 공연명칭 그대로 약 1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이었다고 선전한다. 이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합동공연 이전에 이미 대규모 공연이 개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합동공연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공연방식이나 규모를 통해 특정 행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보면 이번 합동공연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15년 10월 1만명 대공연은 당창건 70돌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된 공연으로, 이른바 북한에서 꺾어지는 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 당과 관련한 행사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만명이라는 참가인원, 참가악단의 수, 특설 무대 등의 대규모 공연은 바로 해당일의 의미를 더욱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1개 악단의 단독공연이 아닌 3개 악단이 합동공연을 개최했다는 점은 단순히 악단 간의 병렬식 합동이라기보다 해당 행사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에도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은 개최한 적이 있지만, 청봉악단까지 포함하여 세 개 악단이 처음으로 합동공연을 했다는 점은 공연의 형식과

3) 김정은 시대 음악정치를 대표하는 모란봉악단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한다』; 모리 토모오미, “모란봉악단, 그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북한학대회 발표자료집, 2015) 참조.

내용, 정치적 메시지, 해당 행사의 특정 의미 등을 분석하기 위한 충분한 의미가 있다.

북한공연에 대한 연구 성격으로 볼 때도 <1만명 대공연>은 상시적인 무대가 아닌 특별 야외무대에서 이벤트성으로 개최된 형식이다. 음악공연 뿐만 아니라 무용과 율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 공연이었다. 이에 반해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합동공연은 음악 중심의 공연이라는 점과 2시간 30분에 이르는 공연시간, 세 악단의 참가라는 점에서 충분히 개별적으로 연구할 의미가 있다.

2. 선행연구

2012년 7월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 이후 국내외적으로 모란봉악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북한에서 특별한 행사나 기념일에는 반드시 공연을 개최한다. 모란봉악단과는 별도로 만들어진 청봉악단 역시 김정은 시대의 음악정치를 대표한다. 그동안 모란봉악단의 공연 특성과 의미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모란봉악단에 관한 첫 연구는 한승호와 김수민의 연구로, 김정은의 새해 첫 공식행보였던 2013년 신년경축공연을 분석하여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다.⁴⁾ 이 연구는 북한의 신년행사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공연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후 강동완·박정란은 모란봉악단이 공연이 담은 정치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공연형식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⁵⁾ 이 연구는 모란봉악단의 결성인 시범공연부터 14회차 공연까지의 각 공연별 특성을 제시했다. 이어 강동완·문다혜는 지난 2014년 9월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공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⁶⁾ 이산애는 석사학위 논문으로 모란봉악단의 공연활동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김정일, 김정은 시기별 음악정치를 비교하고 모란봉악단의 등장배경, 구성과 공연, 노래와 무대배경 등을 공연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4) 김수민·한승호, “2013년 모란봉악단 신년음악회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평화학연구』 제14권 4호(한국평화연구학회, 2013), pp. 247-264.

5)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와 전망: 모란봉악단 공연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제180호 2014년 봄호(2014);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 (서울: 선인, 2014).

6) 강동완·문다혜, “2014년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공연의 의미와 시사점,” 『동북아연구』 제30권 1호(2015).

다.⁷⁾ 모리 토모오미 역시 김정은 시대 음악정치에 관심을 두고 모란봉악단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⁸⁾

그 외, 전영선은 『북한의 전자음악과 대중음악』이라는 단행본을 통해 김정은 시대 음악정치와 모란봉악단에 대해 분석했다. 이처럼 모란봉악단 공연 특성 및 의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청봉악단과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을 분석한 연구는 없다. 이 글은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세 개의 악단이 합동으로 공연을 개최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연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아울러 북한의 음악정치라는 관점에서 7차당대회에서 제시하는 북한당국의 정책방향이 노래선곡과 공연형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II. 공연 개요

1. 일반특징

노동당 7차 대회 폐막 직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공연의 정식명칭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경축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이다. 공연 목적은 “영원히 우리 당 따라”라는 부제에서도 가늠할 수 있는데, 당의 영도와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노동신문 기사⁹⁾를 통해 주요 참석자를 확인해 보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 무력기관 일군들, 충정의 70일전투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공로자들, 평양시안의 각계층 근로자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부, 무관부부들과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이 참석했다고 밝히

7) 이선애, <김정은 시기 모란봉악단의 공연활동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8) 모리 토모오미. “모란봉악단, 그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북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9) 『노동신문』, 2016년 5월 12일.

고 있다.

이번 공연에 대해 5월 12일자 노동신문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인 주체혁명의 분수령에서 위대한 어머니의 송가가 울려 퍼졌다”고 선전한다. 공연은 무려 2시간 30분에 걸쳐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앞서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청봉악단 등의 개별 악단 공연은 대부분 공연시간이 1시간 30분 내외 정도였다. 이번 공연이 합동공연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시간 30분 공연은 이례적이다. 애국가에 이어 공연 1부는 북한에서 불후의 명작으로 선전하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곡의 연주로 시작되었다.



<사진> 공연 실황 화면 캡처

2. 공연구성

이번 공연은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세 개 악단의 합동공연이라는 점에서 2시간 30분에 이르는 장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 가수들이 각각 무대를 구성하기도 하고, 특정 곡을 부를 때는 서로 다른 두 악단 가수가 합창으로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모란봉악단 가수들은 <위대한 조선로동당 만세>라는 주

제로 20여 곡을 “경음악과 노래련곡” 형식으로 부르고, 청봉악단 가수들은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 당이어>라는 주제로 13곡을, 공훈국가합창단은 <빨찌산노래련곡>이라는 주제로 10여곡을 부르는 형식이다. 악단별로 각기 다른 형식의 노래를 부르지만, “세상에 부럽 없어라”는 곡을 연주할 때는 청봉악단과 모란봉악단 가수들이 합창하면서 노래의 의미를 강조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 합동공연이라는 점에서 <가무련곡>을 두 악단이 각각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은 공연 중에 <가무련곡>이라는 주제로 노래와 함께 특유의 춤을 선보인다. 구체적으로 모란봉악단이 “우린 사랑한다”, “배우자”, “우등불” “달려가자 미래로”를 부르면서 춤을 선보인 후, 곧바로 청봉악단이 “보란 듯이”, “세상이여 부러워하라”라는 곡을 부르며 각기 다른 형식의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인다. 특이한 점은 합동공연답게 <가무련곡>중 마지막 순서는 모란봉악단이 단독으로 불렀던 “우린 사랑한다”라는 곡을 두 악단이 함께 등장해 공연을 마무리한다. 아울러 공연의 부제목과 비슷한 내용의 곡인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제목의 곡을 부를 때에는 전 참가자들이 함께 무대에 나와 노래를 부르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표> 합동공연의 선곡 및 연주형태

순서	곡명	구성, 연주형태
1	애국가	
2	남산의 푸른 소나무	관현악과 남성 합창
3	위대한 조선로동당 만세 - 조선로동당 만세 - 빛나는 조국 -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 - 승리의 5월 - 조국보위의노래 - 복구건설의 노래 -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 -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 로동당은 우리의 령도자 - 천리마 달린다 - 내 나라 -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 충성의 한길로 가리라 -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 - 승리의 길 - 불타는 소원 - 그이 없인 못살아 - 천리라도 만리라도 -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경음악과 노래연곡
4	사랑하노라	무반주합창
5	사회주의 지키세	경음악
6	어머니 목소리	혼성4중창
7	당의 기차따라, 천리마 달린다	남성합창연곡
8	어머니당이어	현악4중주와 현악합곡
9	당을 노래하노라	여성3중창과 방창
10	하나의 대가정	여성5중창
11	신심 드높이 가리라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12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관현악
13	세상에 부럽없어라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14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어	여성중창

15	빨찌산노래련곡 -조선의별 -혁명가 -유격대행진곡 -토별가 -반일전가 -혁명군의 노래 -적기가 인민주권가, 조국광복 10대강령가, 무도곡 우리는 아동단원, 사향가,	관현악과 남성합창
16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여성중창
17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	경음악
18	인민의 축원	여성중창(청봉악단)
19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어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리 -그대는 어머니 -운명의 손길 -그대 밖에 내 몰라라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 -가고싶어 가는 길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그리움은 나의 행복 -우리의 감정은 동지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 -인민은 일편단심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어	경음악과 노래련곡
20	우린 사랑한다 배우자 우등불 달려가자 미래로 보란 듯이 세상이여 부러워하라 우린 사랑한다	가무련곡
21	우리의 신념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22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관현악과 노래

Ⅲ. 공연구성의 의미와 특징

1. 세 개의 대표악단, 같은 무대에 서다.

북한 공연 중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이 함께 합동공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이 합동공연을 개최한 적은 여러번 있었다. 당7차대회 경축공연 이전인 지난 2016년 2월 13일에는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4>호 성과적 발사에 기여한 우주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축하공연>이 개최되기도 했다.

그 이전에는 2013년 2월 제4차 세포비서대회참가자들을 위한 공연이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당창건 68돌 경축공연 역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노동신문 기사에는 김정은이 “합동공연은 사상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런 혁명적인 예술단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다”라고 보도하였다.¹⁰⁾

이번 합동공연을 함께 참여한 청봉악단은 2015년 7월에 결성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성지로 기념되는 청봉지역의 이름을 따서 <청봉악단>이라 불린다. 청봉악단 역시 모란봉악단과 같이 김정은의 지시로 결성되었고 그 이름까지 직접 지어 준 것으로 알려진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청봉악단은 “왕재산예술단의 실력있는 연주가들과 모란봉증창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던 가수들이 망라되었다”고 한다.¹¹⁾ 2015년 7월에 결성되어 한 달 뒤인 8월에 러시아초대공연을 다녀온 청봉악단이 북한에서 첫 공연을 한 것은 당창건 70주년 경축공연이었다.

청봉악단은 기존의 모란봉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을 합쳐놓은 형태라 할 수 있다. 모란봉악단이 약 20여명의 여성단원들로만 구성되었지만, 청봉악단은 남성 연주자들도 포함된다. 결성 당시 금관악기위주의 경음악이라 소개했던 것처럼 트럼본, 트럼펫, 바이올린, 클라리넷 등은 남성 연주자이며 가수는 9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청봉악단의 대표 가수는 김옥주, 송영, 김주향, 김성심 등이며, 청봉악단의 데뷔

10)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한다』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 p. 125.

11) 『조선중앙통신』, 2015년 7월 28일자.

곡은 <영원한 메아리>라는 곡이다.

결성 당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은 나라 천만군민이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기다리고 기다려온 청봉악단이 인민의 이름으로 빛나는 문화예술의 전당 인민극장에서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고 소개하고 있다. 당창건 기념일 축하공연은 그 이전까지는 공훈국가합창단이나 모란봉악단이 주로 담당했다. 그런데 2015년 10월 당창건 70주년 축하공연은 <1만명 대공연>,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에 이어 특이하게 청봉악의 단독공연까지 추가로 개최되었다. 특히, 청봉악단의 당창건 70주년 기념공연에는 김정은이 모란봉악단 단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다. 그리고 1년 뒤 세 개의 악단이 합동으로 공연을 진행한다. 그만큼 당7차 대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2시간 30분 동안이나 진행된 공연시간 역시 세 개의 악단이 합동공연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만큼 공연성격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공연에서 세 악단이 입은 의상을 보면 한눈에 구분된다. 공훈국가합창단은 군복을 입고 무대 왼쪽에, 청봉악단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 가운데에, 모란봉악단은 흰색 제복을 입고 무대 오른쪽에 각각 배치되었다. 세 개 악단의 합동공연으로써 클라이맥스는 공연 마지막 곡인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부를 때다. 공훈국가합창단이 대규모 오케스트라 형식의 연주자로 구성되고 남성합창이 주요 특성이라면 청봉악단과 모란봉악단은 여성 가수들과 전자악기로 구성된다. 마지막곡을 부를 때 세 개 악단의 전 연주자와 가수가 모두 무대에 출연하여 합창과 중창, 연주로 공연을 구성한다. 이는 세 개 악단의 협업을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라는 곡에 담긴 의미를 다시한번 강조하는 공연형식이다.



<사진> 왼쪽부터 공훈국가합창단, 청봉악단, 모란봉악단의 모습

2. 화려한 춤으로 상징되는 ‘ 변화 ’의 키워드

이번 공연에서는 “가무련곡”이라는 제목으로 <우린 사랑한다>, <배우자>, <우등불>, <달려가자 미래로>, <보란듯이> 등의 노래와 함께 현란한 춤 동작을 선보였다. 이 곡은 모두 이전 공연에서 연주된 곡들인데 이번에는 마치 종합세트처럼 한번에 이어서 부르며 새로운 춤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서 역동적인 동작의 춤과 화려한 무대조명 등을 선보인 것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공연형식을 통해 김정은의 젊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선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전 공연에서 한 번도 현란한 춤을 추지 않았던 청봉악단 역시 <세상이여 부러워하라, 우리를 부러워하라>는 노래를 부르며 경쾌한 춤을 선보인다. 이러한 공연형태의 변화는 김정은 시대의 공연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노동신문은 이번 공연에 대해 “가수들의 참신하고 세련된 형상과 풍만하고 장중한 울림, 화려한 무대장치 등 주체예술의 눈부신 발전면모를 과시한 공연”이었다고 평가한다.



<사진> 청봉악단의 공연 모습

IV. 공연의 주요 선곡과 의미

1. 혁명의 계승을 강조한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

북한공연은 레퍼토리가 특정한 의미와 정치적 메시지를 전한다는 시각에서 이번 공연의 선곡을 살펴보자. 공연 시작을 알린 애국가에 이어 1부 첫 곡은 북한이 불후의 명작으로 선전하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곡이다. 이 곡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김일성의 부친인 김형직이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모란봉악단 공연은 물론 합동공연에서 한 번도 연주되지 않은 곡이다. 이후 연속으로 <위대한 조선로동당 만세>,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 <승리의 5월>, <북구의 노래>,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불려진다.

이 노래구성 흐름은 일제 강점기부터 공화국 수립, 당창건, 6.25전쟁(북한에서는 조국해방전쟁) 그리고 이후 전후북구에 관한 내용을 순서적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김일성에 대한 회고와 찬양이 들어 있다. 북한 아리랑 공연이 백두의 혈통부터 6.25전쟁, 전후복구, 지도자의 성과 등을 순서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번 공연구성 역시 김일성의 일대기를 시기별로 구성하여 그 성과를 선전한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

1절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 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활 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2절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 되어도
광복의 한길에서 고향 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3절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 올제 독립만세를 조신아 불러다오



<사진> “남산의 푸른 소나무” 악보 일부

한편, 이 노래를 부를 때 무대 배경화면에는 <志遠(지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진다. 노동신문은¹²⁾ “<지원>의 사상으로 개척된 력사의 새벽길로부터 세기와 세대를 이어오며 혁명의 려정에 영원한 투쟁의 진군가, 신념의 찬가로 울려 퍼지고 있는 불후의 명작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민족자주사상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12) 『노동신문』, 2016년 5월 12일.

계속혁명사상으로 승승장구해온 조선로동당의 영광 넘친 행로를 감명 깊게 펼쳐 보이며 관현악과 남성합창으로 첫 무대에 올랐다”고 소개한다.

또한 조선중앙방송은 <조선혁명과 더불어 영원할 불후의 명곡 혁명가요>라는 방송에서 김정일이 “지원의 사상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수령님께 물려주신 유산의 하나이며 우리가 자자손손 받들어나가야 할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입니다”라는 교시를 내렸다고 선전한다.¹³⁾ 당국가체제의 사상적 기반은 물론 혁명의 여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하며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곡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진>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연주할 때 무대 배경화면에 연출된 “志遠(지원)”

2. 3대 세습을 찬양하는 음악 선곡

다음으로 이어지는 곡은 전후복구 이후 당의 영도 아래 김정일의 성과와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로동당은 우리의 향도자>,

13) 「조선중앙방송」, 2016년 6월 28일.

<천리마 달린다>, <내나라>,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로 이어지는 구성을 통해 김정일에 대한 성과를 찬양한다. 무대 배경화면에는 김정일이 지시한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라는 문구가 강조된다.

실제로 북한이 제7차 당대회의 기본정신으로 내세우는 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자강력제일주의’이다. 그래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강력제일주의 정신을 발휘하여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벌림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고 주창하였다.¹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찬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곡 다음에는 김정은으로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노래가 이어진다. <불타는 소원>이라는 곡은 모란봉악단의 대표적인 신곡으로 모란봉악단 등장과 함께 김정은의 세습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곡이다. 노래 가사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을 이어주시며 인민을 위한 한길만을 언제나 걸으십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으니”라는 내용다. 이후 이어지는 곡은 <그이 없인 못살아>, <천리라도 만리라도>,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등의 노래인데 이 곡의 가사들은 모두 김정은을 찬양하는 곡으로 “그이 없인 못살아 김정은 동지, 그이 없인 우린 못살아...”, “위대한 김정은 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오직 한길 가리라...”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노래 구성은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강조하는 노래들이다. 1부 공연의 주된 구성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현대사의 사건별로 구성하고, 이후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곡으로 연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당대회를 통해 그동안 유훈통치를 끝내고 이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와는 달리 당의 정상화를 보여줌으로써 ‘김정은의 조선노동당’임을 선포하고 북한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밝혀 정권이 안정적이라는 기대효과를 얻고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¹⁵⁾

14) 김창희, “북한 로동당 제7차 대회 경제정책의 분석과 평가,” 『한국동북아논총』 제81호 (2016), p. 119.

15) 김병욱,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개최배경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제32권 2호(2017), 124.



<사진> 청봉악단 공연 중 무대 배경화면의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선전구호

3. 당과 조국을 위한 충성의 노래

공연은 3대세습에 대한 내용에 이어 국가와 당에 대한 충성을 노래하는 곡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사랑하노라>, <사회주의 지키세>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당 대회라는 특성에 맞게 <어머니의 목소리>, <당의 기치 따라>, <어머니 당이여>, <당을 노래하노라>,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여> 등 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어진다.

당7차대회를 축하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연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공연구성 상 당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가 많이 선곡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는 합동공연이라는 규모나 노래 주제를 비교할 때 유독 당을 찬양하는 곡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시급하게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 김정일 선군시대와는 달리 당중심의 국가운영, 즉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당-국가체제의 정상화에 대한 욕구로 파악된다.¹⁶⁾ 이전의 군부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는 조치와 더불어 사

상성에 대한 고취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번 공연에서 유독 당에 대한 충성과 결집력을 강조한 노래가 선곡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신님 드높이 가리라>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1부가 끝나고, 2부는 <세상에 부림 없어라>라는 곡으로 시작된다. 이 곡은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 그리고 공훈국가합창단 가수들이 모두 나와 함께 부를 만큼 중요한 곡으로 표현되었다. 이 곡은 지금까지 모란봉악단에서 한 번도 공연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 광명성 4호 발사 축하공연에서 연주되었고, 김정은은 연주 중에 직접 이 곡을 따라 부르기도 했다. 7차 당대회 직전인 지난 5월 5일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이 곡에 대해 김일성상 김정일상을 수상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노동신문(2016년 5월 12일)은 이 곡에 대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만민이 부러워하는 수령복, 당복을 누리려는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영광이 황홀한 음악세계로 펼쳐지는 속에 무대에 오른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김일성상, 김정일상계관작품 <세상에 부림없어라>, 무반주합창 <사랑하노라>와 당 제7차대회를 향한 70일 전투의 나날에 태어난 송가들인 녀성중창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여>, <인민의 축원>은 위대한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 영원한 사회주의찬가로 뜨겁게 메아리쳤다.”고 소개한다.

이번 7차 당회를 통해 북한은 “혁명위업 계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수령의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어가는 세계적 모범을 창조했다”라며 권력 승계 완료로 선언하였다. 전 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한다는 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며 온 사회에 김정은 유일영도체 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을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이전에 한 번도 불리지 않던 <세상에 부림 없어라>는 곡이 세 개 악단의 합동 공연에서 전 참석자들이 함께 불렀다는 점은 이 곡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완성하면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세습의 정당성과 김정은의 제도적 기반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16) 김병욱,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개최배경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제32권 2호(2017), 114.

17) 남성욱, “7차 당대회로 본 북한의 미래는: 김정은 통치시대 개막 선언,” 『통일한국』, 제390호, (2016).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대표적인 곡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에 부림 없iera>

<1절>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후렴)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친형제 세상에 부림 없iera

<2절>

우리 힘 꺾을 자 그 어디 있으랴 풍랑도 두렵지 않네
백두의 뱃을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부강하iera

<3절>

동무들 다 같이 노래를 부르자 손풍금 소리 맞추어
천리마 나래퍼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 하였네

가. 인민의 축원이라는 곡의 의미

이번 공연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찬양과 업적을 찬양하며 우상화하는 내용의 곡이 많았다. 청봉악단이 부른 <인민의 축원>이라는 곡은 “늦은 밤에도 잠들지 않고 인민을 보살피는” 지도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곡은 청봉악단의 대표 가수인 송영의 독창으로 불리는데 리지성이 작사하고 우정희가 작곡했다.

노래 가사를 보면 “원수님 한분만 믿고 사는 인민의 소원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원수님 안녕만을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모란봉악단의 대표곡인 “불타는 소원”이라는 곡의 “아침저녁 소원은 원수님 안녕입니다. 하늘땅도 소원하는 원수님 안녕입니다”는 가사와 비슷하다. 이번 7차 당회에서 김정은에 대한 유일적 지위가 공식화 되고 이를 찬양하기 위한 곡들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에 있어서 수령의 지위가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먼저 표면화되었다면, 제7차 당대회에서는 공식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대회는 노동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명명하였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 지도 사상으로 채택, 당내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강조했다며, 김정은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의 위업을 달성할 것을 요구했다.¹⁸⁾

<인민의 축원>

작사: 리지성
작곡: 우정희

1절

온하루 먼길우에 찬바람 맞으시고
이밤도 사색을 이으시는 원수님
자정이 자정이 넘었는데 언제면 쉬시렵니까
원수님 원수님 이제는 삼태성도 기울었습니다.

2절

인민의 부림없는 행복을 꽃피우시며
천만리길 쌓인 피로 잊으시는 원수님
먼동이 먼동이 떠오는데 이밤도 지새십니까
원수님 원수님 창밖에 나뭇잎도 잠들었습니다.

3절

조국의 부강위해 온넛을 불태우며
찬란한 우리 미래 펼치시는 원수님
새날이 새날이 밝았는데 또 먼길 떠나십니까
원수님 원수님 노을도 소원안고 불타올니다

원수님 한분만 믿고사는 인민의 소원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원수님 안녕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인민의 축원”을 독창으로 부르는 청봉악단의 가수 송영

18) 오일환,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와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 확립 전략,” 『통일전략』 제16권 3호(2016), p. 36.

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라는 곡의 의미

공연의 마지막 곡은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곡으로 이 곡을 연주할 때 배경 화면에는 “수소탄완전실험 성공”이라는 문구와 광명성4호 발사 장면이 등장한다. 이때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손뼉을 치는데 곧이어 무대화면에는 김정은의 대형사진이 보인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승리 앞으로”, “자력자강”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부각됨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세습과 정권의 의도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강성대국건설 대신 강성국가건설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웠다. 당에서 제시한 병진노선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핵심기조가 되었고, 제7차 당대회에서도 국가발전전략의 화두로 등장하였다.¹⁹⁾ 이번 7차 당대회가 경제정책이나 새로운 비전 제시보다는 3대세습과 개인 우상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면, 이번 축하공연 역시 철저하게 김정은의 우상화를 위한 곡들로 치밀하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신문(2016년 5월 12일)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완성의 휘황찬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나아가는 참된 전위대오가 있기에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을 안겨준 공연은 김정일상계관작품 관현악과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끝났다.”라고 소개한다. 이 노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무대 배경화면에는 김정은의 대형사진이 연출된다. 노래가 끝나자 무대에는 축포가 터지고 무대 천정에서는 종이가루가 쏟아지며 막을 내린다.

19) 김창희, “북한 로동당 제7차 대회 경제정책의 분석과 평가,” 『한국동북아논총』 제81호 (2016), p. 114.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1절 저 멀리 험한 령을 넘어 걸어온 길 그 얼마라
우리 서로 뜻을 같이하고 혁명의 먼길을 왔이라
영광넘친 길을 걸어도 준엄한 길 걷는다해도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2절 혁명의 비바람을 헤쳐 가야 할 길 몇만리나
성스러운 기밭아래 다진 그 맹세 더욱더 불 타네
한순간을 우리 살아도 두 번 다시 태어난대도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3절 눈서리를 이겨내는 꽃은 그 향기도 영원하고
해빛 안고 피어나는 마음 언제나 그 뜻을 따르네
천만 산악 넘어간대도 세찬 파도 헤쳐 간대도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우리 신념 붉게 피리라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사진> 공연의 마지막 노래가 끝난 후 무대 모습

V. 결론

김정은의 지위를 공식화 한 당7차대회는 김정은 시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합동공연은 이전 공연과는 달리 세 개의 악단이 합동공연 형식으로 2시간 30분 동안이나 진행되면서 그 의미를 높였다. 당7차 대회에서 강조한 김정일의 당적 지위와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곡들이 이번 공연에서 주로 선곡되었다. 무엇보다 당국가 체제의 확립과 당의 영도를 강화하기 위해 당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주를 이루었다.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이라는 북한을 대표하는 세 개의 악단이 합동공연을 통해 당7차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부여했다.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의 단독공연이 아닌 세 개 악단이 함께 무대를 만들고, 당7차대회 참가자들이 관람한 것은 당원들의 사상성과 조직화를 고양하기 위한 선전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음악정치를 강조하는 북한에서 악단은 단순히 음악예술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특히, 김정은 시대 모란봉악단의 경우 김정은의 “친술악단”이라 할 만큼 그 위상이 높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공연 그 자체로서 김정은을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란봉악단의 화선공연이나 지방 순회공연을 대하는 북한주민들의 인식은 자신들을 위해 친히 김정은이 선물을 보내주었다는 의미로 인식할 정도다.

이처럼 김정은의 음악정치를 대표하는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 그리고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은 이번 당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수여하는 특별한 의미로 보인다. 당7차대회에서 언급한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확립하기 위한 음악 선곡과 무대 배경이 연출되고, 세 개 악단이 합동으로 당에 충성하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 세 개 악단의 참여, 공연시간, 공연선곡, 무대배경 화면 등을 통해 북한이 이번 제7차 당대회를 바라보는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당의 영도를 강조하며 기존의 당국가체제로의 공고화를 꾀하는 북한당국으로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당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사상성과 충성도를 강화하고자 했다.

제7차 당대회를 간략히 평가한다면, 새로운 발전전략인 ‘회황한 설계도’를 제시하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김정은이 “당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최고강령으로 틀어쥐도록”요구하고,²⁰⁾ ‘전당(全黨)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을 촉구하는 정도였다.²¹⁾ 그런 점에서 이번 합동공연은 당원들의 충성도를 결집하고 사상을 강조하는 주요한 선전장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북한은 경제발전 방안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꺼내 들었다. 북한은 당 대회 때마다 경제관련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7차 당대회 개최를 위해 그동안 70일 전투 등 국가동원을 독려했던 북한정권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앞으로 주목된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공연의 마지막 곡으로 부른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가사처럼 “당 중앙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의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지켜볼 일이다. 아울러 사상성을 높이고 체제결속력을 강화하려는 김정은의 음악정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20)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서, 2016년 5월 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 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6년 5월 10일자.

21) 오일환,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와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 확립 전략,” 『통일전략』 제16권 3호(2016), p. 11.

<참고문헌>

- 강동완. 2018. 『김정은의 음악정치: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두번째 이야기)』. 서울: 선인.
- _____. 2014.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
- _____. 2015. “모란봉악단 제5차 훈련일꾼대회 참가자를 위한 기념공연 의미와 전망.” 『국제정치연구』. 제18집 2호.
- 강동완·박정란. 2014.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와 전망: 모란봉악단 공연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봄호 통권 제180호.
- 김병욱. 2017.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개최배경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제32권 2호.
- 김수민·한승호. 2013. “2013년 모란봉악단 신년음악회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평화학연구』 제14권 제4호.
- 김일기·김형수. 2016.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통일정책.”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집 제4호.
- 김창희. 2016. “북한 로동당 제7차 대회 경제정책의 분석과 평가.” 『한국동북아논총』 제81호.
- 남성욱. 2016. “7차 당대회로 본 북한의 미래는: 김정은 통치시대 개막 선언.” 『통일한국』. 제390호.
- 모리 토모오미. 2015. “모란봉악단, 그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북한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_____. 2016. “김정은 시대 ‘음악정치’의 연속성과 혁신성.” <세계북한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배인교. 2013. “2012년 북한의 음악공연과 樂.”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13호.
- 오일환. 2016.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와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 확립 전략.” 『통일전략』. 제16권 3호.
- 이상숙. 2016. IFANS 주요 국제문제분석 “북한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엘리트변동.”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이선애. 2015. 「김정은 시기 모란봉악단의 공연활동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영선. 『NK POP: 북한의 전자음악과 대중음악』. 서울: 글누림, 2018.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Joint Performance among the Moranbong Band, Cheongbong Band and Gonghun National Choir in Celebration of North Korea's Seventh Party Convention

Dong Wan Kang(Assistant Professor, Dong-A University Hana Center)

On May 11, 2016, North Korea held a special show to celebrate the seventh party convention. The celebration involved a joint performance among the Moranbong Band, Cheongbong Band and Gonghun National Choir. There have been various analyses and prospects home and abroad regarding the seventh party convention, and this joint performance attracts attention as another factor with which to analyze the seventh party convention. The fact that the three bands, which display Kim Jong Un's political intention so well that they are called the means of his music politics, put on a joint performance demonstrates the importance and significance of the seventh party convention. The three bands worked on a joint performance for the first time, which adds further significance to the event. What significance does the joint performance have between the Moranbong Band, which is called the icon of Kim Jong Un and the trumpeter of the Seongun Revolution, and the Cheongbong Band and the Gonghun National Choir, which are considered as the core of socialist civilization construction in North Korea?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intentions of North Korea behind the seventh party convention by analyzing the joint performance among the Moranbong Band, Cheongbong Band and Gonghun National Choir.

Key words : Moranbong Band, Cheongbong Band, North Korea, Musical politics, Gonghun National Choir.

논문 접수일: 2020년 05월 17일

심사 완료일: 2020년 06월 14일

게재 확정일: 2020년 06월 20일